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30분 7시
오전 (2부) 7시 30분 7시
오전 (3부) 7시 30분 7시
오전 (4부) 7시 30분 7시
금요일 (1부) 18시 30분 18시 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4년 6월 8일 (제745호)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 30분 7시 30분
오전 (2부) 10시 10시
오전 (3부) 2시 2시
저녁예배 7시 30분 7시 30분
수요일예배 (지배) 8시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칼럼

노릇을 해야지!

지난 달, 인터넷 게임에 빠져 젓먹이 3형제를 영양실조에 빠트린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다. 이들은 인터넷 게임을 하느라 한두 살배기 3형제를 돌보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을 따라 한다. 설비사가 되려고 해도 자격증이 필요하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되려면 남들보다 더 공부해서 의사면허증을 따라 한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되는 것에 자격증이 나 면허증이 없다. 그냥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누구나 엄마 아빠가 된다. 그게 문제다. 그러나 좋은 부모는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모노릇을 제대로 해야 참 부모가 되는 것이다.

어디 부모뿐이라. 목사가 되는 길은 쉽지도 않지만, 목사 노릇하기는 더욱 어렵다. 또 장로요, 권사, 집사들이 직함만 가지고 있지 노릇을 안 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허울 좋은 직함이다. 경주호 사건에서도 선장노릇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참사가 난 것 아닌가.

나는 이 '노릇'이라는 것을 곧 책임이라 풀고 싶다. '노릇=책임'이다. 부모노릇은 자식들이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 바르게 성장시켜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목사는 양 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책임지는 것이고, 교회의 일꾼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질 때 당당히 자기노릇을 다한 것이다.

다들 직함들은 번지르르하다. 그런데 정작 노릇하는 자는 없다. 어떤 일에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책임 완수하는 자가 드물다. 그래서 사회가 시끄럽고, 사고가 발생하고, 부조리가 판을 치는 것이다. 직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셔서 책임을 완수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이 사회에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22년에 접어든 우리 교단의 해외선교 역사는 1992년,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부터 시작되었다. 목사님이 늘 간증하시는 사건, 바로 '두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계시를 받고 단벌차림으로 일본 땅을 밟았다던 그 이야기가 우리 교단의 첫 해외집회였던 셈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선교지로 문을 여신 곳이 하필이면 왜 일본이었을까? 가 끼워서? 그럴 리는 없다. 지금 우리가 남미를 메추 밭듯 다니고 있는데, 그곳은 지구 반대편, 가장 멀고도 먼 나라를 아나? 어찌 보면 우리 교단에 해외선교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내린 첫 시험지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왜냐하면 선교의 길

회개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 니느웨로 들어간 요나는 하룻길로 다니며 니느웨가 멸망 하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도성은 왕부터 집안의 가족까지 금식하며 회개로 돌입한다. 이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니 니느웨를 향한 진노를 거두신다. 그러자 요나는 잔뜩 시험이 들었다. 차라리 죽어 달라라 성을 낸다. 그리고는 성 바깥 동편으로 나가 니느웨가 어찌 되나 지켜보기로 한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위해 박 넉줄로 해를 가려주셨다. 금방 죽겠다면 요나가 뭘 뜻이 기뻐한다. 그런데 이틀만 새벽에 벌레로 그 박 넉줄을 씹

며 복음을 전하는 대역사를 이루었다. 그러한 목사님의 순종이 오늘날 전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믿는다. 그런데 지금의 일본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외교적 행태를 보면, 무엇 하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만한 구석이 없다. 독도, 정전대 문제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한 철저한 외면 뿐 아니라 재무장을 선포하는 극우세력들의 발호까지 더하여 더욱 극도로 치달고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일본으로 가라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분의 부르심에 아골 골짜기 반도에도 복음 들고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한 바



일본 교회의 첫사랑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일본 동경 우에노공원 집회 광경)

이란 정말 원수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이다. 요나를 원수의 나라 니느웨로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몸으로 공감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수행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이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 멸망의 메시지를 니느웨에 전하라는 사명을 부여 받았다. 그러나 요나는 조금도 그러고 싶지 않았다. 원수의 나라 니느웨는 멸망해야 마땅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은 들은 척도 않고 다시스로 향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 개인이 어쩔다고 변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의 구원에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고, 물고기 뱃속에 떨어진 요나는 3일간 몸부림치며

게 하사 다 시들게 하신다. 이 무슨 변칙인가? 피약법이 작렬하자 요나는 다시 죽어 달라 성한다. 이에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 당신의 뜻을 펼쳐 보이신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낚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 넉줄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을,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 이만 여명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함당치 아니하냐'(욥4:10-11).

그러나 목사님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일본 땅을 밟았다. 두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겁게 실감하면서 말이다. 그렇게 시작된 일본 선교의 결과 일본 전역에 24개 교회를 세웠고, 수차례 영상을 통해 보았듯이 동경 우에노 공원의 수많은 노숙자들을 먹이

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기필코 당신의 뜻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번 집회는 2006년 오사카 집회 이후 8년만의 일이다. 목사님의 방문으로 무엇보다 일본 교회들이 첫사랑을 되찾아야 하고, 우상으로 몰든 일본 열도를 성령으로 담구는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려야 한다.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55:8-9).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밤 8시 30분 KBS88체육관

문의:1600-0688,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사41:10~17)



두려움은 의욕을 좀 먹는 암이다

“느브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단3:16~17).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당장 풀무불로 던져질 위기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한 말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예4:16). 하만의 계획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한 말입니다.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느4:14).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던 느헤미야가 도비아와 산발랴이 훼방하고 협박하자 백성들을 독려한 말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삼상17:45).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능멸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협박할 때, 어린 다윗이 물뿔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며 한 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담대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전들은 모두 담대했습니다. 어디 믿음의 선전들 뿐이었습니까? 한 시대에 획을 그은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담대한 자들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인류 최대의 적이다 공포가 있는 곳에 행복은 없다

니다. 하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 에디슨을 비롯한 발명가들, 혁명호 같은 예베레스트, 남극점 탐험가들... 모두 담대함이 무기였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해야 할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주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수1:9).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늘 어디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두려워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옛날 한국전쟁 때 전쟁터에 나가 총에 맞아 죽으면 “뺨”하고 죽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뺨 없는 사람은 다 전쟁터에 나갔지만, 뺨 있는 사람은 요

리조리 다 빠져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뺨을 가지고 있다면 뭐가 두려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기에 성전 건축에 앞서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와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대상28:20)고 유언했고, 히스기야는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하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오수르 왕과 그 좇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



총회장 이초석 목사

께 하는 자가 저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대하32:7)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의욕을 좀 먹는 암적 존재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이자가 두려운 자는 사업을 하지 말고, 이혼할까봐 두려운 자는 결혼하지 말고, 맞는 것이 두려운 자는 챔피언의 꿈을 버리라.”고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것을 보십시오. 10명이 정탐꾼은 두려움에 가득 차 가나안 땅을 보니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으로 보였고, 그 성은 너무나 높아 들어갈 수 없게 보였고, 사람들은 대장부들이라 자기네들이 메뚜기처럼 보인 것입니다. 공포에 질려 있으니 뭐가 제대로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 빛과 썩어 흐르는 땅이며, 아름다운 땅으

로 보이고, 그들의 밥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회의 아들 갈렙이 그 곳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쟁과 쟁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민14:6-9).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자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 습 니 다 . 왜

요 ?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마8:26).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 세계로 다니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19-20).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 알기에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가짜 목사요.”라고 담대히 말하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30년 목회를 하는 동안, 수많은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고, 무수한 핍박도 받았습니 다. 최루탄으로, 몽둥이로, 칼로, 권총으로 협박도 무수히 받았

습니다. 경찰, 검찰에 조사를 받기도 했고, KGB에 끌려가기도 했고, 재판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

두려워하는 자는 이미 죽은 자다

습니까(롬8:31)?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이 떠나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마10:28).

그 하나님은 권력자, 재력가, 지력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 늘 나여 늘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사51:12).

분명한 것은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내게 정말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욥3:25).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두려움은 유리벽과 같아서 깨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떠나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밀어내면 됩니다.

여러분, 한강이 발원하는 곳에는 컵 하나도 떠올 수 없지만, 강이 되고 바다가 되면 항포함도 떠올 수 있듯, 두려워하는 생각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담대함이 낳을 결과를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사에 담대함으로 나가십시오. ‘담대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365번 기록된 것은 1년 365일, 곧 매일 담대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히13:5).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하나님의 품으로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을 포함한 모든 친척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작은 어머니는 어떻게든 어린 우리들을 교회로 끌고 가셨다. 워낙 성격도 강하시고 엄격한 신앙을 갖고 계신 터라 우리는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방학이면 찾게 되는 작은 집에서 어쩔 수 없이 교회로 가야했다. 그러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귀찮기만 했다. 뭘 그리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많은지, 이 자유로운 세상에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저 피하고만 싶었다.

그런데 알맞게도 고등학교 때 새로 들어온 형수에게 또 다시 이끌려 교회를 가야 했다. 그러나 교회 가서 하는 일이란 그저 꾸벅꾸벅 조는 일이 다였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면 졸기 시작하여 축도할 즈음에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그런데 그 잠이 어찌나 개운한지 일주일의 피로가 다 풀리는 기분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참 은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다 군대를 제대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귀찮고 성가시거만 했던 하나님, 내 삶을 억압하고 간섭하는 하나님이었던지, 내가 새로이 체험한 부분은 더 이상 내 삶의 훼방자가 아니었다. 갑자기 그분을 더 알고 싶어졌고, 철야예배가 있는 금요일이나 주일이 되면 교회로 달려갈 마음에 설레곤 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렇다. 나에게 성령이 오신 것이다. 나의 전 삶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린 성령께서 내 가슴을 열고 들어온 것이다. 그 이전에는 꼭 군가나 북한 노래 같았던 찬송들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 없어 눈물을 흘리곤

했다. 어디 은혜 받을 자리가 없나 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라면 거리불문하고 찾아다녔다. 내 인생의 향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변화를 집감한 것은 그토록 귀찮기만 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목청껏 외쳐 부를 수 있는 내 아버지요, 그 하나님의 품에서 내가 앞뒤 가릴 것 없이 마음껏 울게 되었다는 것이다. 솔직히 남자가 이 땅에 살면서 천연덕스럽게 영영 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럴 일도 별로 없었을 터라, 눈물을 흘리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니 언제든 그 품에 온몸을 내맡기고 내 삶의 문제들을 시시콜콜히 아뢰며 울 수 있게 되었다. 교회에 모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나, 은밀히 골방에서 홀로 기도할 때나 세파에 시달리며 이런 저런 문제로 고통스러울 때, 목 놓아 아버지를 부르며 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정말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그 만족감을 설명할 수 없다. 다른 그 무엇이 어떠하다 해도 그저 그 품에서 마음껏 울 수 있다는 사실 하나로 너무나 행복하다.

나의 결점뿐만 아니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 나의 모든 죄까지도 알고 계시지만, 언제나 넉넉한 사랑으로 참고 인내해주시는 그 넉넉한 품에 언제나 거할 수 있으니 오직 감사뿐이다. 오늘 그 품에 내 온몸을 맡긴 채 실컷 울고 싶다. 내 아버지의 품에서...

Henry Han

henry8829@naver.com

행한 대로 받는다

4남매를 잘 키운 어느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자, 어느 날 자식들을 다 불러 모으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키우느라 많이 힘들었다. 너희 4남매를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는 일이 몹시 버거웠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약간의 빛이 있구나. 내가 건강하다면 그것을 다 갚겠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병이 걸려서 더는 일을 할 수 없으니...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 빛을 너희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 여기 종이가 있다. 여기에 얼마씩 낼 수 있는지 적어보아라.” 그리고는 종이를 4남매 앞에 한 장씩 내놓았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뜻밖의 발언에 놀라며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아니, 아버지께서 재산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빛이라니...’라고 역력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 중에 제일 어렵게 사는 셋째가 종이에 5천만 원이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뿔뿔한 얼굴로 3천

만 원이라고 썼고, 둘째 아들은 2천만 원이라고 썼습니다. 딸은 ‘나는 출가와 인인데...’ 하면서 천만 원을 쓰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가 다시 4남매를 불렀습니다.

“지난번에 너희가 써준 것 잘 봤다. 사실 빛은 없다. 다만 유산으로 너희들끼리 싸움이 날까봐 내 나름대로 방법을 취한 거다. 지난 번 너희들이 쓴 가격을 알고 있지? 유산은 너희가 쓴 것의 꼭 5배씩 준다.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할 거다. 장남은 1억 5천만 원, 둘째는 1억, 셋째는 2억 5천만 원, 딸은 5천만 원이다. 이상이다. 가봐라.”

자식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다들 ‘많이 쓸 걸...’ 후회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후9:6).

예수중심편집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 한 분 만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소리일 뿐’이라고 자신을 그쳐 예수님의 신들이 품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할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던 세례요한이 오직 한 가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마11:3, 눅7:20) 하고 물은 것은 참 의아한 일이다.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고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세례요한이 세상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것일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시원스레 “그래, 내가 오기로 한 메시야가 맞다.”라고 답하지 않으시고,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일어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

이 전파된다고 전하라”(마11:5)고 하시며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마11:6, 눅7:23)고 하셨을까?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절박함을 호소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예수님 맞습니까?”라는 의미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하고 물을 때마다, 예수님은 한결 같이 “나는 너희의 탐욕에서 비롯된 분쟁이나 해결해주려고 재판장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눅12:13-21)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이 땅의 인간들에게 천하영광을 주고자함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늘나라를 주고자 오셨으니, 결코 실족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실족시키지

할 수 있을까? 먼저는 자신이 과거 애급에서 종 되었던 자였음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 예수님만이 복음임을 아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도 실족하지 않은 것은 죄인 중의 죄수인 자기를 택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님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이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여전히 당신은 이렇게 묻고 있는가? 먼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분으로 만족할 때, 당신 삶 속에 ‘오실 그이’, 곧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소망과 축복과 이적이 당신 삶에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하서연 전도사

ohzion1004@daum.net



착한 당신,
실망하지 말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Jesus mania by shin

당신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기꺼이’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헌신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b@naver.com

::성경에서 배운다::

::생각해봅시다::

그 누가 뭐래도

두 다리와 세 손가락이 없는 중증장애를 안고 태어나 생후 6개월 만에 시설 앞에 버려졌지만, 지금의 어머니를 만나 입양된 이후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 장애인올림픽 수영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세진군의 이야기가 화제다. 로봇다리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처음 어머니와 함께 의료진을 찾아갔을 때, 절대 걸을 수 없으니 그냥 좋은 휠체어나 하나 사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때 어머니는 “절대 걱정하지 마! 그 누가 뭐래도 엄마가 너를 돌보던 유모가 넘어지는 바람에 두 다리를 다쳐 평생 절뚝발이가 되었다. 게다가 자신의 할아버지가 지금의 왕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죽음을 당했으니 아마도 자기는 이제 죽는 일만 남았다고 생

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남퍼러지에 놓인 브비보셋을 다윗이 궁으로 불러들였고, 그는 서글픈 마음을 억누르며 저는 다리로 힘겹게 다윗에게 나아갔다. 하지만 다윗은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히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재산을 브비보셋에게 줄 것이며 왕자들처럼 왕과 한 상에서 식사를 해도 된다는 은총을 베풀었다. 그런 다윗의 사랑이 브비보셋을 얼마나 크게 감동시켰는지 이후 다윗이 전쟁에 나가자 그는 부친상을 당한 자식처럼 머리로 깔려 알고 의복도 빨아줬으니 채 기다리다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요단강을 건너 버선발로 다윗을 맞이하러 간다. 그리고 자신을 따라 전쟁에 나오지 않은 브비보셋을 오향하고 섬살함을 갖고 있던 다윗이 원래 자신의 소유였던 밭을 시바와 나눠가지라는 역울한 명령을 내려도 오히려 다윗이 무사히 돌아왔으니 밭 뒤에는 시바가 모두 가져도 상관없다며 자신의 진실된 충정을 고백한다(삼하19:21~30).

돌아보면 김세진군과 브비보셋처럼 눈에

보이는 장애인만이 아닌 인격과 성품의 장애, 죄의 사슬에 얽매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한없이 초라한 마음에 남몰래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나 같이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가느냐’고 자책하거나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혹은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며 마음을 열지 않아 문밖에서 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영혼들이 그들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 누가 뭐래도 너는 너를 건게 할 것이다!’, ‘그 누가 너를 정죄하고 욕한다 하여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서 반향할 차례이다. 지금 나의 부족함과 죄 뒤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용기를 내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맞이하자!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빛나고 아름다운 명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하인명

renming@daum.net

Good News

미국 서부지역에 기독교를 극심하게 반대하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주일날 아침에 비지뿔을 흘리며 밭을 갈고 있을 때,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에 가는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야? 아까운 시간에 밭이나 갈지. 교회에 간다고 밭이 나와 딱이 나와.”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해 10월에 그 농부는 서부에서 가장 많은 농산물을 수확하였습니다. 기고만장해진 농부는 지역신문에 “나 같은 사람이 성공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특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

에는 기독교인들이 그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고 이런 문구의 광고를 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10월에만 결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농부는 자신의 수확물을 보고 기뻐하며 기독교인들을 폄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였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는 분이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9:27). 누구나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

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3:16-18).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바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는 자는 참으로 여러서는 사람입니다. 시종일관 자는 인생의 노후(老後)를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죽은 뒤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일은 더욱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Edu Section::

자녀의 소중한 것을 인정해주자

오래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교 부근에 자리를 잡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할 즈음이었다. 우리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던 집을 대청소하셨다. 그것도 내가 며칠 집을 비운 사이에. 고등학교 신입생 시절부터 3년 동안 구독했던 <월간잡송> 한 무더기를 다 버려버렸다. 뭐 그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었다. 근데 나만의 보물이었던 해적판 LP를, 거의 칠십여 장이 넘는 소중한 딸의 피 값과 영혼의 생명줄 같았던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셨다. 어머니의 시선으로 보시기에는 못마땅한 것이고 별 것 아니셨겠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남포동 레코드 가게로 달려가서 툼툼이 한장 한장 떨리는 맘으로 모았던 것들인데... 난 그날 이후로 소중한 것을 상실당한 채 우주의 방황하는 미아로 청

춘을 보냈다. 어렵사리 구했었던 사라진 명반들이 대학 방송실에 꽂혀서 당당함을 뽐내는 것을 보는 것조차도 내 영혼에 생채기가 났고, 영원히 치료받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다. 삼십여 년이 지나고, 지금은 내 딸이 가 수집광이었던 엄마를 닮았는지 방방마다 책이 가득하다. 그 책을 덕분에 이사비용을 추가로 더 지불해야 하고, 보기에도 답답한 2미터가 넘는 책장을 해마다 하나씩 들여야 한다. 방마다 가득 찬 책들을 보면 언젠가 기회 봐서 모조리 대학 도서관에 기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나의 어머니처럼 그런 엄마는 될 수 없기에 딸의 책들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애정과 열정과 시간과 노력이 담긴 자녀의 분신은 어지간하면 헐파시키지 않고 지켜주는 엄마가 되고 싶다. 그렇게 되려

고 노력한다.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소중한 것을 지켜주지 못하는 어머니 되기보다는 자녀의 입장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인정해줄 수 있는 어머니가 되어야겠다. 나에게서는 하잘 것 없는 그 책들이 딸의 지성의 산실이 되어 미래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옛날, 우리 어머니가 딸의 소중한 자산을 그리 헐파시키지 않았더라면, 그 명반들이 오늘의 나를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줬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아쉬움이 남지 않길 희망한다.

오자유

oh free@hanmail.net

고구마 심었어요

요즘 기도원에서는 개보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여러 가지 작물들을 재배하기 위한 작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전 뒤와 예전 목욕탕 뒤편에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성전 뒷마당은 작물을 심을만한 땅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돌이 유난히 많거든요. 돌이 많으면 농작물이 잘 필 리가 없으니까요. 당연히 준비 과정에서 그 땅에서의 고구마 농사는 안 된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고구마를 심었느냐고요? 먼저 돌을 다 골라내고 거기에 좋은 흙은 부어 옥토를 만들었습니다. 총화장 목사님께서 늘 설교하신 말씀, ‘자갈을 제거하면 옥토가 된다’는 말씀을 실천한 겁니다. 늘 말씀 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지혜이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참 지식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면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고자하면 길이 있고, 방법도 있습니다. 목적을 설정하면 생각이 속도를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목적지로 이끄는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 속에 있는 돌, 즉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 옥토를 만드세요. 거기에 희망의 씨, 소망의 씨를 심으세요. 분명히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녹슨 파이프라인을 갈지 않으면 맑고 깨끗한 물을 절대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올해 늦서리가 내리기 전에 고구마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고구마 수확을 보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가을에 주렁주렁 고구마가 맺힐 것을 기대해주세요.

신영서

jesus7857@gmail.com



자갈을 골라내고



퇴락밭 아래 고구마를 심었다